



인도네시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신흥국 전략

BI 총재 사임,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 사임, 독립성과 정책 신뢰도에 대한 경계감 증폭

7월 27일 페리 와르지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총재가 임기를 약 2년 남겨둔 채 갑작스럽게 사임하면서 중앙은행 독립성과 정책 신뢰도에 대한 경계감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인 사임 배경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근 정부의 통화당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 우려가 누적돼온 만큼 시장은 이번 사임을 단순한 개인적 결정으로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중앙은행 독립성을 둘러싼 우려는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우선, 프라보워 대통령이 취임 이후 2029년까지 경제성장률을 8%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아래 재정지출과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 촉진을 강조하면서, 긴축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통화당국에 성장 지원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월 프라보워 대통령의 조카인 토마스 지완도노가 중앙은행 부총재로 임명된 데 이어, 6월 의회가 중앙은행의 경제성장 지원 책임과 정책 성과에 대한 의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정부의 통화정책 개입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은 한층 고조됐다.

한편, 와르지요 전 총재는 달러 대비 루피아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자 5월과 6월 기준금리를 누적 100bp 인상하며 환율 방어에 나서는 등, 최근 물가와 통화 가치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높은 성장률 달성을 위해 우호적인 금융 여건을 필요로 하는 정부와 루피아화 안정을 위해 긴축 대응에 나선 통화당국 사이에 정책적 간극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정부와 상이한 정책 기조를 유지해온 총재가 임기를 남겨둔 채 돌연 물러나면서, 사임 배경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중앙은행의 정책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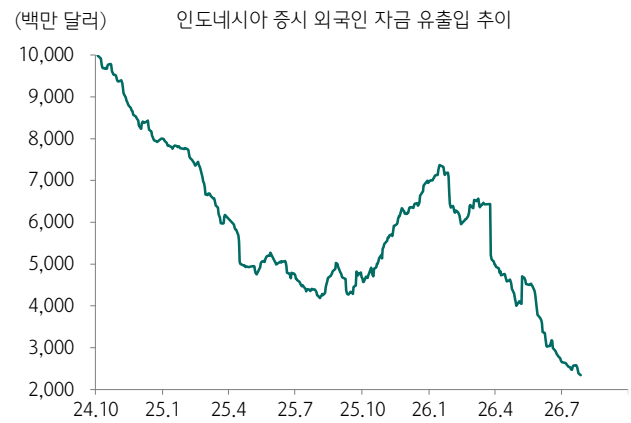
당분간 시장의 관심은 후임 총재 인선에 집중될 전망이다. 물가와 환율 안정을 중시하는 인사가 선임돼 기존 정책 기조의 연속성이 확인된다면 시장의 경계감도 완화될 수 있다. 반면, 프라보워 대통령과 가까운 정치권 인사나 성장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는 인물이 후임으로 지명될 경우 중앙은행 독립성과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인도네시아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을 높여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과 루피아화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후임 총재의 성향과 초기 정책 행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도표 1. 인도네시아 IDX 종합지수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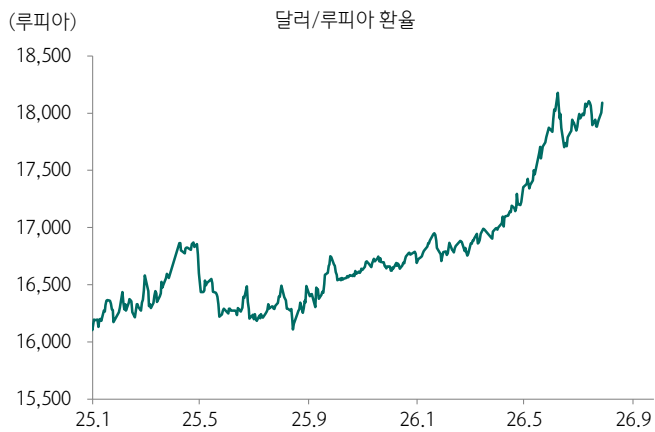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2. 인도네시아 증시 외국인 자금 유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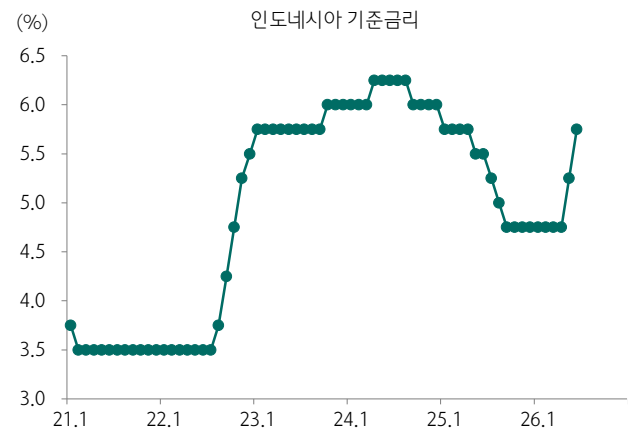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3. 달러/루피아 환율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4. 인도네시아 기준금리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